

갑질 · 고용불안 등 겪는 아파트 경비원들

경비원들이 갑질, 고용불안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경비원 상대 갑질 왜 반복되나...용역회의 그늘

6일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지역 경비원 대다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 직접 고용되는 대신 용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갑질 고용된다.

센터가 광주 광산구 아파트 201곳을 조사한 결과 경비원을 자체 고용하는 곳은 44곳(22%)으로 집계됐다. 157곳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18개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이는 불안한 고용 상황으로 이어진다. 경비원들이 용역업체와 단기 근로 형태(1년 미만)로 계약하면서, 민원 발생 시 쉽게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센터가 2016년 벌인 경비원(212명 상대) 실태조사에서 1년 단위 계약은 60%에 불과했다. 용역업체 변경 때에도 50.8만 '고용이 승계된다'고 답했다.

70세 이상의 경비원들은 3개월 단위 촉탁직으로 계약하고 있고, 만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을 채우기 직전 해고하거나 업체를 변경하는 사례도 잦다고 경비원들은 증언했다.

경비원을 자주 바꾸는 용역업체 일수록 일자리 소개비를 챙기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서 이윤을 남긴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경비원들이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지역 경비원 90%는 센터 조사에서 입주인 등과 갈등을 겪어도 '참는다'고 답했고, 7%는 '근무지를 바꾼다'고 했다.

◇ 임금 인상되면 근로조건 악화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입주주민의 관리비 상승과 직결된다. 이에 경비원 감원과 휴게시간 연장이 이뤄진다.

센터가 지난해 4월9일부터 22일 사이 광산구 아파트 98곳에서 일하는 경비원 1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지 10곳(4.3%)의 경비원 10명이 감축됐다.

휴게시간도 77.3%가 연장됐다. 최저임금 인상율(16.4%)에 맞춰진 급여 상승은 9.7%에 불과했다. 70%가량이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배제돼 있었다.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은 사실상

용역 소속에 해고·퇴직금 꾸기 등 편법 수단 '직접 고용 등 노동인권 보장 위한 대책 마련을'

근로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택배 물품이나 민원(인터폰·비상벨·방문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하고, 휴게 공간 또한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했다.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실 수 없다는 설명이다.

휴게시간 연장과 인원 감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법인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72%가 모른다며 '경비 업무에 대한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입주주민과 경비원의 관계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라는 그릇된 편견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비원 갑질 금지법 개정 법률, 실효성 적어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2017년 9월22일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A씨·C씨의 사례처럼 입주 주민 등이 경비원을 해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치안 관리를 포함해 택배·주차 관리·청소·분리수거 등의 업무 또한 경비원들의 몫인 상황이다.

정찬호 센터장은 "부당한 지시를 당해도 경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비 업무에 대한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입주주민과 경비원의 관계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라는 그릇된 편견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인권 증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경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 관리(직접 고용) 정착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법 제도 개정 ▲휴게시간 늘리기 제재 ▲24시간 교대제 근무 변경 ▲입주민 의식 개선 ▲갑질 노동 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가 자치 관리를 하면, 용역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또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없애고 고용 승계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적용해야 한다.

박용주 센터 조작용장은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마지막 직장"이라고 불리는 경비직은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 인권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너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 관리를 자치 관리로 바꾸는 것과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인격 공존체적 관계 형성, 노동에 대한 존중,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지원 등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은홍 기자



마스크 쓰는 법을 배워요 최약의 미세먼지가 이어진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마스크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中공장 400억 증자' 반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경영난에 직면한 중국공장에 대한 400억원 증자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정상화의 이킬레전인 중국공장은 지난해 금호타이어 경영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금호타이어가 중국타이어기업 더블스타로 인수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더블스타가 현재 중국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부

실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6일 "경영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공장에 4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라며 "부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영정상화는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중국공장 운용자금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부

호타이어의 부실을 더욱 키울 것이라 우려감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최근 밝힌 중국공장 정상화와 국내공장 신규 설비투자 등을 위해 최대 주주인 더블스타가 지난해 납입한 자금이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인 더블스타는 지난해 7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6468억원을 지원했지만 현재 남은 금액은 1600억원으로 전해졌다.

임형택 기자

美서 불법주차 둘러싼 다툼 총격 1명 중상

미 미주리주 세인트찰스에 있는 미 유통업체 타겟의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불법 주차한 것을 둘러싸고 말다툼이 벌어져 분노한 한 남성이 불법 주차한 아마존의 운송 기사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인트찰스 경찰의 톰 윌킨슨은 21살의 아마존 운송 기사가 등에 총을 맞아 중상에 빠졌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은 아니라고 말했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는 65살 먹은 남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불법 주차한 아마존 기사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해 말다툼이 시작됐으며 다툼 중 넘어진 65살 남성이 격분해 자신을 넘어트린 아마존 운송 기사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총격을 가한 65살 남성이 장애인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아마존은 성명을 발표해 총격 사고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자폭테러 용의자 44명 체포

파키스탄이 지난 2월 14일 인도 군인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자살폭탄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44명을 체포했다고 파키스탄 내무부가 5일 발표했다.

체포된 44명 가운데에는 불법단체로 금지된 무장단체 자이샤-모함마드의 지도자 마수드 아자르의 동생 무프티 압둘 라우프와 다른 주요 지도자 2명이 포함됐다.

마수드 아자르의 의형제인 함마드 아자르도 체포된 44명 중에 포함됐다.

자폭 테러 공격과 지난 주의 상호 공습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면전 발발 일보직간까지 가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인도는 지난 주말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달 자폭 테러 공격 용의자 명단을 파키스탄에 넘겼으며 라우프는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인도는 명단을 넘기며 파키스탄이 이들 용의자들에 대해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자폭 테러와 이후 양국 간의 상호 공습 등 고조된 긴장 완화를 겨냥한 것이 틀림없다.

아잠 울레만 칸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에 추가 증거를 제공한다면 자폭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체포에 앞서 파키스탄은 인도 잠수함 1척이 아라비아해에서 파키스탄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탐지했지만 침범 행위는 없었으며 파키스탄 측 경계에 따라 퇴각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서 민간인 30여명 총격 사망

나이지리아 북서부 잠피라 주의 한 마을에서 무장괴한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최소 30여명이 죽고 마을 집들도 불태워졌다고 5일(현지시간) 잠피라 경찰이 발표했다.

잠피라 경찰의 모하메드 세후 대변인은 신카피자구의 크오레 마을에서 일어난 이 총격사건은 4월 아침에 시작되어 여러 시간동안 계속되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닥친 용의자들은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총격범들은 경찰 추산 30명을 죽였지만 주민들은 35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머지 주민들은 무사히 달아났으며 일부는 아직도 실종상태이다.

생존자인 유누사 라왈은 그 날 새벽 여자들이 샤워하려고 물부킷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도망친 엄마들을 찾아 헤메면서 더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격범들 가운데 몇 명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전했다.

주민들 가운데 노인과 어린이들 수십명은 총격을 피해서 몇 킬로미터의 길을 걸어 지방 행정부 청사에 모여 대피중이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의 북서부에 있는 잠피라는 이웃 카두나주와 마찬가지로 최근 몇 달동안 총기로 무장한 단체들의 총기난사와 살륙이 자주 벌어졌던 곳이다.

뉴시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